



여성불교의 현실과 문제를 이해하고 상호연대와 지원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 여성불자 1300여명이 중앙승가대에 모였다.

여성불교 현주소 한국에서 찾다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6월 27~7월 2일) 현장

29개국 1300여 대중 운집, 학술·문화행사 '풍성'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 주최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가 6월 27일 중앙승가대학교에서 개막했다. '여성불자의 교육과 수행 : 현재와 과거'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 개막식의 기조 연설은 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광우 스님의 '한국 비구니의 어제와 오늘'을 시작으로 앤 캐롤린 클레인 교수의 '타 문화간의 종교이해를 위한 실천 방법', 폴라 아라이 교수의 '여성불자들의 정신적 자유'가 각각 발표됐다.

이번 대회 추진위원회 본가 스님은 "이번에 발표된 논문들의 특징은 전 세계 여성불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한데 모아 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각 나라의 여성불교 현실과 문제점들을 이해하고 상호 연대와 지원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중앙승가대 자비관 4층 대강당을 가득 메웠다.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 인원들은 1층, 4층 로비에서 외부스크린을 통해 학술발표에 참여하는 등 열성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회 기간 동안 각종 다도 시연과 가사, 서각, 염색, 한지 공예 전시가 열렸으며 야간에는 육화당 뒤편 야외무대에서 매일 각기 다

문제점 이해 연대·지원 계기 마련
사찰순례·범패공연 등 흥미진진
천태종 비구니 스님들 참석 눈길

른 주제로 각 나라의 전통문화공연이 펼쳐졌다. 7월 3일~5일에는 해인사, 불국사, 석남사, 운문사, 봉선사를 방문하는 사찰순례를 통해 한국 불교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는데도 소홀하지 않았다.

이번 대회는 29개국 184명의 외국인 참가자를 비롯해 13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외국인은 38명이 참가한 미국인 참가자가 제일 많았다. 참석 인원만으로도 지난 7차 타이베이 대회의 3배 규모다. 세계적 여성불교지도자들의 방한도 관심을 모았다. 비교종교학으로 유명한 '앤 캐롤린 클레인' 교수와 '폴라 아라이' 교수, 불교 페미니즘의 권위자 '리타 그로스' 교수, 티베트의 여성 불교지도자 '덴진 팔모' 스님 등이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 천태종 비구니 스님들의 대회 참가도 눈에 띄었다. 구인사 성수 스님을 비롯한 8명의 비구니 스님이 참가했다. 천태종 창종 이후 비구

니 스님이 외부 공식행사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역 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였다. 자원 봉사자들의 역할도 빛났다. 영어통역 40명, 일어와 중국어 각 5명의 자원봉사자가 대회를 지원했다. 최연소 통역 자원 봉사자는 고교 2학년 문아림(18살)으로 대회기간 동안 명성 스님과 쏘모 스님의 통역을 담당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한국 여성불교의 국제적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대회장 쏘모 스님, 클레인 교수, 덴진 팔모 스님 등 외국 주요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 비구니 승가의 지력을 극찬했다. 덴진 팔모 스님은 "우리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데 기존 서구의 여성불교보다 문화적 동질감을 가진 한국이 더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 여성불교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는 대회였다. 공동대회장 명성스님은 "이번 같은 국제적 규모의 대회를 통해 국제 불교계와 교류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갖춘 도제양성의 필요성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쏘모 스님도 "한국 비구니 승단이 지금보다 더 조직화되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회 폐막식이 열린 7월2일 공동대회장 쏘모스님은 유엔이 수여하는 '자랑스런 불교 여성상'을 수상해 참가자들의 축하를 받았다.

제9차 세계여성불자대회는 오는 2006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다.

글=조용수 기자·사진=박재완 기자



■ 명성 스님(공동 대회장·전국비구니회장)

한국 불교계가 여성불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더 많은 도제를 양성해서 더 많은 국가에서 한국 불교의 우수성을 포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제적 감각을 갖춘 포교사 역시 더 많이 양성해야 하는 필요성이 날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어요. 앞으로 여성의 힘으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전 세계에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 쏘모 스님(공동 대회장)

동남아시아 국가의 여성불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교육과 수행입니다.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한국의 불교는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해 가장 남녀의 차별이 적은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여성불교는 세계여성불자들의 '햇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한국불교가 세계 여성불자들을 위해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여름 특별기획안내 (호화유람선으로 이르는 중국여행 및 사찰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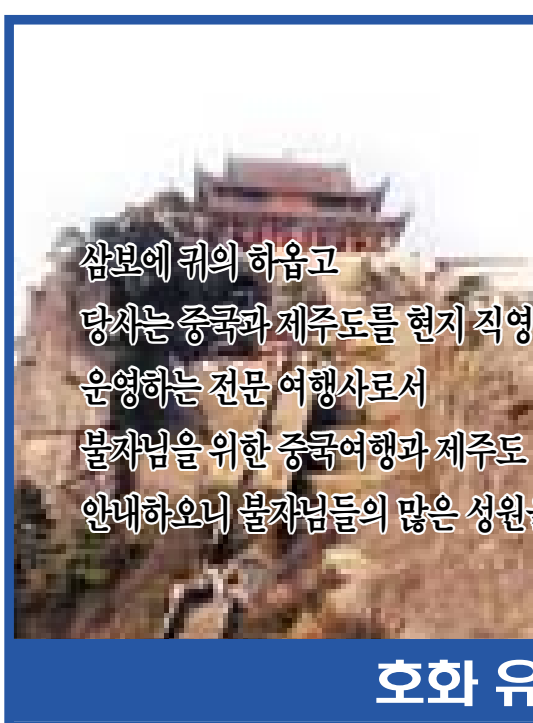
- 호화유람선 진천페리로 매주 화요일 출발
 - 천진, 북경 7일(파운사, 와불사, 옹화궁) ₩ 390,000원
 - 천진, 북경, 낙양 7일(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 490,000원
 - 천진, 북경, 오대산 7일(운강석굴, 화엄사, 현통사) ₩ 590,000원
- 호화유람선 진천페리로 매주 금요일 출발
 - 천진, 북경, 내몽고 8일(호화호특) ₩ 520,000원
 - 천진, 북경, 패상초원 8일(포타라궁, 보녕사) ₩ 520,000원
- 호화유람선 위동페리로 매주 목요일 출발
 - 청도, 제남, 곡부 6일(천불산 만불동, 영암사, 잠산사) ₩ 390,000원

(주) 행복만선 Tel. (02) 730-0705

중국 불교 성지 순례

1. 관음도량 보타 낙가산 5일 79만원
2.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79만원
3.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5일 85만원
4. 문수도량 오대산 운강석굴 5일 69만원
5.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5일 69만원
6. 달라이라마 티벳 8일 169만원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록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지는 중국과 제주도를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차림을 위한 중국여행과 제주도 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차림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